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3. 11. 16.(목) 14: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불참위원 : 없음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동관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두 분 중 두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동관 위원장
 - 2023년도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이동관 위원장
 - 2023년도 제38차부터 제42차까지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동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23-43-196)

○ 이동관 위원장

- <의결안건 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연합뉴스티브이와 (주)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2023년 11월 13일 제출한 (주)연합뉴스티브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과 유진이엔티(주)가 2023년 11월 15일 제출한 (주)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심사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합뉴스티브이 최다액출자자가 (주)연합뉴스에서 학교법인 을지학원으로, (주)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가 한전케이디엔(주)에서 유진이엔티(주)로 각각 변경되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 8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내용과 심사위원회 구성절차, 위촉기준, 결격사유 등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과 항목을 정하고,

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사업자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별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청 내용 중 <표>에 적시된 각각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변경 승인 신청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주)연합뉴스티브이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내용입니다. 변경 전에는 (주)연합뉴스가 29.86%로 최다액출자자였으나 변경 승인 후에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30.08%로 최다액출자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유진이엔티(주)의 (주)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내용입니다. 변경 전에는 한전케이디엔(주)이 21.43%로 최다액출자자였으나 변경 승인 후에는 유진이엔티(주)가 30.95%로 최다액출자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주)연합뉴스티브이입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2023년 11월 3일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3년 11월 13일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와이티엔입니다. 2022년 11월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제출한 YTN 지분 매각계획을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한전KDN·한국마사회 두 회사는 각각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분 매각을 권고하고, 유진이엔티(주)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2023년 11월 8일에 최종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이엔티(주)는 매도회사와 계약을 체결 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2023년 11월 15일에 방통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심사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승인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변경 승인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임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대상 방송사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중점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 8인 이내로 구성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절차입니다. 심사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촉기준입니다. 방송·시청자, 경제·경영·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위촉하겠습니다. 심사위원 결격사유는 신청인 및 해당 방송사의 이해관계에 저촉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안)입니다. 기본방향은 변경 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합니다. 변경 승인 여부, 변경 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심사위원회 임무입니다.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와 심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업자 의견청취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계획 등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법인 대표자와 해당 방송사 대표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필요 시 신청법인의 최대주주 및 실질적 지배자를 포함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간 내 의견청취 내용을 심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안입니다. 심사위원 간 토론을 거쳐 심사위원별 총평 및 심사사항별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심사위원별 심사의견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결정하며, 심사위원장

은 심사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심사 항목입니다.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심사기준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과 관련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및 주요 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의지, 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평가합니다.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과 관련해서는 신청법인·구성 주주의 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내역 등에 대해서 평가하고, 특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확인 및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자체심의기구 운영,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어린이·청소년 보호 방안,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 등을 평가합니다.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방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최다액출자자로서 해당방송사를 지원하고, 방송발전 기여할 계획 등을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방송법 제8조와 14조 등에 따른 소유 규제와 방송사 겸영제한 규정 위반 등을 면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변경 승인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사업자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승인 여부 및 승인 조건 등을 의결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 보고한 심사 기본방향,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항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 잘 수립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합뉴스TV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YTN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보고 안건 심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변경 승인이 YTN이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과 또 민영화로 인해 공공성이 약화되고 상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큰 만큼 다양한 의견과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논란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는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합당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사무처에서는 법과 기본계획에 따라 투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동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22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이동관 위원장
 - <보고안건 가> “2022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2022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2022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실적 주요 점검결과입니다. 2020년도 종편·보도PP 5개사에 부과된 59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2022년도 이행실적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2023년 10월 20일에 보고하였으므로 보고 내용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내용은 크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부분,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부분,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부분, 방송발전 지원계획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조건 이행현황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계획 준수 관련입니다. 점검결과 JTBC는 관련 조건을 미이행하였고, YTN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TV조선 및 채널A는 방송 내용 검증시스템 강화, 방송심의·취재윤리 관련 구성원 교육, 편성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JTBC는 사업계획서에서 ‘정치인 등 공인 발언 검증’, ‘시청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짜뉴스 검증 역량’ 강화 등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와 관련된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JTBC 사업계획서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22년 대선을 앞두고 타사 보도를 인용 보도한 것과 대선 후보와 관련된 수사 의혹을 단독 보도한 것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 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JTBC가 시청자 사과방송을 실시하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당시 취재기록물 왜곡 및 담당자의 허위 보고 등 보도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바 있습니다. JTBC 진상조사위원회 중간 조사 결과는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는 등 일방의 취재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과 ‘취재기록을 왜곡하여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보도하였다’는 JTBC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JTBC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사 유사 사례와 달리 취재기록을 왜곡하여 새로운 의혹을 단독 보도하는 등 '허위 정보 검증 강화'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미이행하고 관련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YTN은 오보방지를 위한 팩트체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계획에 제시한 사항을 외형상 이행하였고, 2022년 대선 당시 타사 보도 인용과 관련하여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혼선을 야기한 점을 감안할 때, 이행이 일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항목인 협찬주의 상품·용역에 관한 협찬사실 고지 관련입니다. 위 조건은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와 사업자 제출 실적 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TV조선과 JTBC가 미이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월별 이행실적 점검 결과, TV조선이 고지 횟수위반 총 3건, JTBC가 고지 횟수위반 총 1건으로 재승인 조건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표>에 있는 2022년 방송사별 협찬사실 고지 위반 세부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TV조선은 협찬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해야 하나, 총 2회만 고지하는 등 고지 횟수가 불충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JTBC의 경우는 협찬사실고지를 3회 삼입하여 제작·송출하였으나, 방송 중 3회차 고지가 '공습경보 뉴스속보 자막'에 가려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콘텐츠 투자금액 준수 관련입니다. 점검결과 채널A가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투자실적을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따라 검증한 결과, TV조선은 '22년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였으며, 채널A는 '21년에 이어 '22년에도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입니다. 점검결과 TV조선이 2건, 채널A가 3건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TV조선과 채널A는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간부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를 마련하는 사안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채널A는 '22년도 프로그램 장르별 편성 계획 중 드라마 등의 편성 실적이 계획 대비 부족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픽 콘텐츠 사고예방을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운영은 보도PP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점검 결과, YTN과 연합뉴스TV는 그래픽 사고 관련 3단계 검수 절차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을 마련·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픽 관련 방송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23년도 이행실적 점검 시 후속조치 및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연합뉴스TV 겸직 금지 및 직원파견 해소와 관련해서 대표이사 겸직 해소가 아직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연합뉴스TV로부터의 직원파견 근무는 줄고 있으나, 연합뉴스TV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해당 권고사항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연합뉴스TV는 대표이사 겸직 해소를 위해 정관 개정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겸직해소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계획 준수 조건 미이행과 관련해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계획을 미이행한 JTBC에 대해 재발방지 방안 마련·이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부과하고, 이행이 일부 미흡한 YTN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해당 사항을 '24년 재승인 심사 시 검토하겠습니다. 협찬사실 고지 조건 미이행 관련입니다. 협찬사실 고지를 누락한 TV조선에

대해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JTBC의 경우 협찬사실 고지를 하였으나 공습경보 속보 자막 등에 가려져 관련 조건을 위반하게 된 것이므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재난방송사의 공적책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성 없이 발생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콘텐츠 투자 조건 미이행과 관련하여 콘텐츠 투자 관련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채널A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하겠습니다. 권고사항 미이행과 관련해서 TV조선, 채널A 및 연합뉴스TV에 대해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2023년도 이행실적 점검 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중에 조건 미이행 사업자 대상 시정명령 사전통지 또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권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위원장님, <나>항까지 같이 보고받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그럴까요? 그럼...

나. 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이동관 위원장

- <보고안건 나> “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과정책과장

- '22년도 지상파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 사유입니다. '22년도 지상파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관련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경과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점검결과입니다. 점검 대상은 72개 방송사에 부과된 (재)허가조건 총 525건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12건이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주요 조건 이행현황입니다. 1) 지역방송국 자체프로그램 편성 실적 관련입니다. 재허가 계획 대비 KBS경인 제1TV는 98.6%, OBS TV는 96.1%로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의 경우, 미이행 분량은 1일 30초 수준으로 로컬 뉴스 편성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OBS의 경우 이행률이 전년도보다 상향된 점을 고려하여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 UHD 관련 조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UHD 편성 비율 및 방송망 구축 관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UHD 콘텐츠 최소 편성 비율 20%는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다만, '23년부터 수도권 방송사의 편성 비율이 25%로 상향된 점과 UHD 제작 여건, 예외 인정조항 일부 등을 고려하여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을 연내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망 구축 관련입니다. UHD 방송망 구축 관련 조건은 구축 대상 방송사에 모두 조건으로 부과되지 않은 상황과 도청소재지·시군지역 방송사 UHD 전국망 구축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구축된 KBS, 원주MBC, G1방송, MBC경남에 행정지도 조치하고 지역방송 경영상황 및 미디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UHD 콘텐츠 투자 관련입니다. SBS는 계획을 이행하였고, KBS와 MBC는 미이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KBS는 계획(1,420억 원) 중 54.3억 원을 미집행하였고, MBC는 1,478억 중 20.8억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KBS와 MBC는 월드컵·동계올림픽 전 경기를 UHD로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계권료 및 제작비를 100%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제외하였으며, MBC는 국내 프로야구 2차 중계권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을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KBS는 158억, MBC는 315억을 산정금액에서 제외하여 실적을 점감하였습니다. KBS와 MBC는 중계권은 각 스포츠 경기의 전제로 필요한 특수한 비용이므로 100% 모두 투자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UHD 프로그램 제작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UHD 투자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UHD 방송 비율만큼 중계권료 비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KBS는 재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 MBC는 '21년 시정명령에 대한 미이행 사항으로 방송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OBS 사옥이전 계획 지연 관련입니다. OBS는 인천 신사옥 이전은 인천시 협조가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20년, '21년 이행점검 시 모두 행정지도를 조치하여 왔으나, 지속되는 지연으로 행정지도가 반복되고 있는 점, 지연을 막기 위한 사업자의 대응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22년 재허가 시 동일한 조건이 재부과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 미이행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 DMB 관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주MBC는 DMB 관련 음영지역 해소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에 따른 방송수신 환경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검토하였습니다. <5>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입니다.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과 관련하여 KBS, MBC가 '20년 재허가 시에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주요 내용을 확인 및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인터뷰 조작 인용보도와 관련하여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과 확인작업 없이 방송한 KBS·MBC 프로그램 6건에 대해 과징금 등의 법정제재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보도 전 실제 취재가 어느 정도 미흡하였는지 등 절차적 문제는 방송사업자의 일부 자료 미제출로 확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방송사가 해당 보도 및 취재에 대한 절차적 하자들 스스로 방송을 통해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인용보도 시 사실 관계 확인·실제 취재 후 보도를 원칙으로 정한 내부 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심의제재 조치, 자체 인정방송 등을 고려할 때 보도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해당 조건 외에도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와 관련한 권고사항이 '20년 재허가 시에 부과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처리방안입니다.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와 관련하여 KBS와 MBC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규정 위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재허가 시 구체적인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법상 자체 심의기능을 점검하여 심의기구 운영 형식·실제 운영 등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권고사항 점검결과입니다. 70개 방송사에 부가된 권고사항 중 주요사항 144건을 점검하였습니다. KBS 1DTV 지역국 자체제작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하여 울산, 창원, 진주, 대구 등 지역국의 경우 '22년 자체제작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당초 재허가 시 신청서에 기재한 비율 이하로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총국이 아닌 지역방송국들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많이 낮아 지역성 약화가 우려되므로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리 방안입니다. 조건 및 권고사항 미이행과 관련하여 앞서 보고드린 검토의견과 같이 UHD 콘텐츠 미이행과 관련하여 MBC에 대해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KBS에 대해 시정명령, 인천사옥 이전 지연 관련 OBS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하고, 기타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조치하는 방안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가 접수되면 행정지도 조치 및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2개의 보고 안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허가·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느라 고생한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허가 승인 시 방송사가 제출한 방송의 공공성 제고 그리고 공적책임 확보 상황 등을 이행하기 위해 부여한 것으로서 방송사는 허가 승인 기간 내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처는 매년 지상파, 종편·보도PP의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점검하고 있고, 그 결과 이행되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허가·재승인 이행점검 과정에서 이런 미이행과 미흡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과 관련한 미흡 사례는 이미 뜨거운 사회 이슈로 부각되어 일부 방송사는 사과방송까지 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와 과징금 처분 의결 등 많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근거를 확인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것은 방송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사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중요한 재허가·재승인 조건입니다. 향후 재발방지와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는 차기 재허가·재승인 시 심사평가로 반영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떠나 방송사가 정부와 국민에게 이행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송사는 중요한 의무임을 이해하고 무거운 책임감 또한 느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보고 시 미흡한 사항으로 지적된 콘텐츠 투자 계획 및 실적 그리고 공정성 및 공적책임 이행과 관련한 사항 등은 향후에 보다 면밀하게 살피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처에서도 이 점을 유의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처 보고 원안에 2건 다 동의합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아까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보도자료에 제 코멘트를 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하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

이 바로 재허가·재승인 조건입니다. 점검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무책임하게 보도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리되어서 앞에도 지적됐던 것처럼 습관성 재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무처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됐습니다.

8. 기 타

○ 이동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이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취재를 위해서 많은 언론인 분들이 오셨는데 애쓰셨습니다.

9. 폐 회

○ 이동관 위원장

- 이상으로 2023년도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02분 폐회 】